

# “바이든, 시진핑과 통화서 대면 정상회담 제안했다가 불발”

### 파이낸셜타임스 “美, 中 ‘강경태도 고수’ 결론” G20 정상회의 즈음에 화상통화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면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시 주석과의 90분간 통화에서 대면 회담을 제의했지만 시 주석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시 주석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중국을 향해 덜 거친 어조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고 복수의 미 관리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미국 관리자는 중국이 계속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결론짓게 됐다고 FT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7개월 만에 이뤄진 이 통화가 미중 관리들의 몇 차례 외교 회담에서 진전을 얻지 못한 후 시 주석이 진지하게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 시험할 기회라고 묘사했다. 미국 측 관리들은 시 주석이 올해 중국 고위 외교관들이 했던 것보다는 덜 거친 말을 썼지만, 그가 보낸 메시지는 미국이 수사(레토릭)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



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처우,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대만 주변 군사 활동을 비판해왔고 중국 정부는 미국이 핵심 전략적 이익에 간섭한다고 비난해왔다.

다른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후속 교류의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며 즉각적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 미국 관리자는 회담 불발과 관련, 백

악관은 이것이 부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발발 전인 작년 초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중국을 떠나지 않았다. 미국은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중국 언론은 시 주석이 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측 인사는 시 주석이 이 특정한 시점에 약속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양측이 G20 즈음에 전화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화상통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들은 미국이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명백한 관

심 부족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독일마셜랜드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시 주석이 대면 회담을 꺼리는 것을 해석하기 어렵다면 “시 주석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없이 바이든 대통령과 접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계산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취임 인사차 통화한 2월 이후 7개월만 지난 11일 통화했다. 강경하게 맞섰던 첫 통화에 비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에도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 명칭에 ‘타이베이’ 대신 ‘대만’을 사용하는 문제가 불거지는 등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돌고래 1천428마리 대학살 페로 제도서 무더기 사냥

돌고래 사냥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페로 제도에서 하루 만에 돌고래 1천400여 마리가 학살당하자 사냥을 금지하는 주민들도 총격에 휩싸였다고 영국 BBC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양 환경보호 단체인 ‘씨 셰퍼드’(Sea Shepherd)는 해변에 돌고래 사체가 가득하고 연안이 피로 물든 현장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며 지난 12일 페로 제도에서 대서양돌고래 1천428마리가 사냥당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사이의 작은 섬 18개로 이뤄진 덴마크령 페로제도에서는 ‘그라인드’(grind)라고 불리는 대규모 고래사냥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선박들이 돌고래 무리를 해안가로 몰아 좌초시킨 후 사냥꾼이 특수 제작된 칼로 연안에 몰린 돌고래의 척추를 자르는 방식이다. 씨 셰퍼드는 이번 사냥을 두고 1일 단위로 페로 제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돌고래 사냥인 것으로 추정했다. 페로 제도 정부는 매년 평균 600마리 가량의 돌고래와 수심마리의 대서양 낫돌고래가 잡힌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만에 1년 평균치의 2배를



하루 만에 돌고래 1천400여마리가 학살당해 총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덴마크령 페로 제도의 이스타로이섬 해변이 돌고래 사체로 가득하다. /AP-연합뉴스

사화하는 무더기 고래목 사냥이 이뤄지자 사냥을 금지하는 지역 주민들 역시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로 제도 포경협회 관계자는 “돌고

래 무리를 처음 찾았을 때 200마리 정도로 예상했다”면서 “돌고래를 죽이는 단계에 들어섰을 때 사냥꾼들은 이 무리의 진짜 규모를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 “이번 사태는 큰 실수”라면서 “많은 사람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아이티 대통령 암살에 총리 연루? 기소 위기 놓이자 검사 해임

지난 7월 발생한 대통령 암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아이티 검찰이 현직 총리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자 총리는 담당 검사를 해임했다. 아이티 검찰은 14일(현지시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건의 수사관들에게 아리엘 앙리 총리(사진)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고 AP·AFP통신이 보도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 검찰 수장인 베드포드 클로드 “앙리 총리의 기소를 요청할 만한 충분한 요소들이 있다”며 아울러 이민당국에 총리의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클로드 검사는 앞서 지난 10일 앙리 총리가 이번 암살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인 조제프 펠릭스 바디오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총리에게 검찰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 출신인 바디오는 지난 7월 7일 모이즈 대통령 암살 몇 시간 후인 새벽 4시 3분과 4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 총 7분간 당시 총리 지명자였던 앙리와 통화했다.



통화 시점에 바디오는 대통령이 암살된 사저 부근에 있었으며, 앙리 총리는 포르트프랭스의 한 호텔에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바디오는 정부 반부패 기구 등에서 일하다 지난 5월 해임된 인물로, 콜롬비아 수사당국은 그가 범행 시를 전 콜롬비아 용병들에게 직접 암살 명령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 요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앙리 총리가 클로드 검사를 해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총리는 서한을 통해 “심각한 행정상 과실들”로 클로드 검사를 해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AP통신은 이 서한이 13일자라고 보도해, 기소 요청과 해임 중 어느 것이 먼저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 남미 판타나우, 화재로 동물 1천700만마리 죽어

세계 최대 습지 생태계 위기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과 함께 생태계 보고로 꼽히는 세계적 열대 늪지 판타나우의 생태계가 화재 때문에 대규모로 파괴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대학, 비정부기구(NGO)의 연구원 30여 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지난해 판타나우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한 1천700만 마리의 동물이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로 물에서 사는 뱀은 대략 900만 마리가 불에 타 죽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들은 “많은 동물이 동굴이나 속이 빈 나무 속에 사는 데다 강한 불길에 의해 완전히 석회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죽은 동물은 1천700

만 마리를 훨씬 웃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다른 과학자들의 검증 작업을 거쳐 곧 국제 학술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판타나우는 전체 면적(1천500만ha)의 80% 정도가 브라질에 속하고 나머지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 걸쳐 있다. /연합뉴스

“수면의 질, 부정맥과 관계있다”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고 고르지 않은 부정맥(arrhythmia)은 수면의 질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Tulane 대학 공중보건·열대의학대학의 치루(Lu Qi) 역학 교수 연구팀은 수면 건강이 비정상인 사람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 부정맥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의학 뉴

스 포털 메드페이지 투데이(MedPage Today)가 14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처음엔 부정맥이 없었던 40만3천1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의 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하루 7-8시간 자고 불면증이 없고 수면무호흡증이 없고 낮에 졸리지 않는 등 수면 건강이 정상인 사람은 심장세동, 서맥 같은 부정맥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나이스3L (캐노피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352-3010 (내선2번)**  
**061)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광주중앙영광지사 010-3611-5251  
광양대리점 010-5355-1292  
나주대리점 010-3626-3848

함평대리점 010-2602-6501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